

# 분양시장 '지방 양극화' 심화

### 주산연, 6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 전망치 발표

#### 세종·대전·대구·광주·전남 '관심 집중' 부산·울산은 전월 대비 전망치 큰 폭 하락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가해지면서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 일부 지방광역시 분양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만 기대감이 쏠리고 전국적으로는 미분양 물량이 6만호에 육박해, 지방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77.3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일정 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세종, 대전, 대구, 광주 등 일부 지방광역시로 주택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세종(104.1), 대구(100.0), 대전(91.3), 광주(92.3), 전남(100.0)이 서울(90.3)보다 높은 전망치를 나타내며 일부 지방광역시가 분양시장에 선두했다.

반면 부산(56.0)과 울산(50.0)은

전월 대비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50선을 기록하고, 기타 지방역시 50~70선을 유지했다.

권영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자의 분양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지방광역시에서 표출됐다"며 "일부 지역과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한 분양시장의 양극화, 국지화 경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분양물량의 경우 연초 정약제도 변경 등으로 지연됐던 예정물량이 이달 집중되며 이달 전망치는 전월 대비 11.1포인트 상승한 104.3을 기록했다.

다만 이달 미분양 HSSI 전망치도 108.6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4.2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째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6만호를 넘어선 전국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준공후 미분양 물량 1만8763호로 증가하는 등 당분간 미분양 위험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달 전국 예상분양률도 67.4%로 2개월째 60%대를 기록하고 있다

권 책임연구원은 "일부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호전되고 있으나 사업단위의 국지적 특성이 강해 분양사업 여건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분양가격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HSSI 실적치는 69.7로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 100을 크게 하회했다.

대구와 대전, 광주, 세종 등 일부 지방광역시의 실적이 크게 호전되며 100을 상회했으나 기타 지방은 40~60선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며 양극화 현상을 나타냈다.

세종(108.6)과 대전(108.3), 대구(100.0), 광주(100.0)에서 전월 대비 실적치가 15~35포인트 상승하며 전망치와 실적치 모두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실적치가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지역은 부산(46.1), 울산(50.0), 강원(40.0), 충북(44.4)이다.

지난달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기대치가 상승했던 부산은 실적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40선을 기록했으며, 강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달에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적치를 보이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박인레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영 E천수머 대표,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본부장

## 광주지역 中企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30일 신청마감

### 중진공, 해외시장 판로확대 입점~판매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 본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한다.

중진공 광주본부는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 판매 대행사업' 참여기업에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에 입점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참여 기업은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등록

고객대응, 해외배송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문 인력이 부족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초보 중소기업에는 키워드광고, 배너,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지원한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2000여 곳이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 590여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인터파크 등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보유기업 13개사가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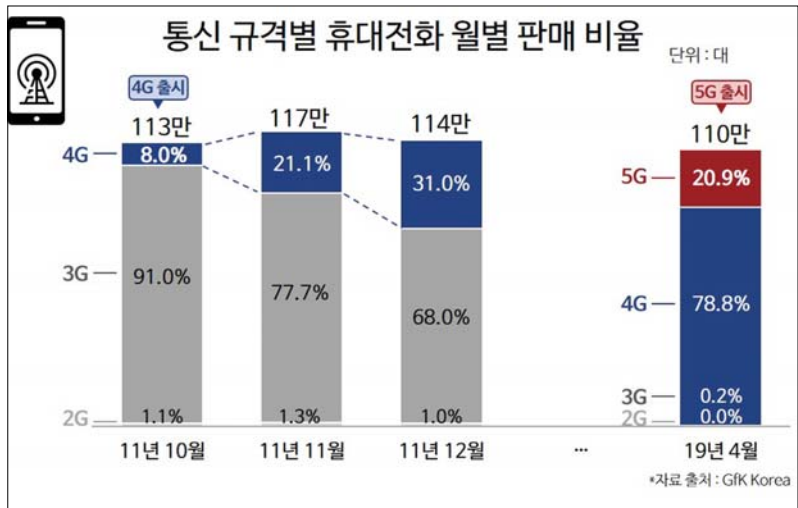
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선발돼 중소기업 250여 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해외지원 사업처(055-751-9777·9779)로 문의하면 된다.

김흥선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해외바이어를 실시간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수출초보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5G폰, 첫 달 23만대 판매...4G보다 흥행"



5G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지난 한 달간 약 23만대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G 스마트폰 첫 달 판매량인 9만대에 비해 좋은 성적이다.

시장조사업체 GfK는 5G 상용화 이후 오프라인 휴대전화 판매량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GfK에 따르면 5G 스마트폰은 상용화 첫 달인 4월 기준으로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 약 110만대 가운데 약 23만대(20.9%)를 차지했다. 이는 2011년 10월 상용화한 4G 출시 첫 달 판매량(113만대)이 약 9만대(8%)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GfK는 "5G 스마트폰 판매량이 앞섰던 이유는 국내 이동통신사가 출시 전부터 '미 5G 플랜 또는 슈퍼 찬스'와 같은 단말 교체 서비스 등 관측 행사로 어느 정도 잠재 고객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GfK는 올해 1~4월까지 오프라인 휴대전화 판매량은 전체 460만대로 전년(490만대) 대비 7% 감소했다고 말했다.

윤정준 GfK 연구원은 "출시 직후 부진한 판매량을 보였던 4G는 지속적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선보이면서 6개월 만에 기존 3G의 판매 점유율을 넘어섰다"며 "이와 반대로 5G 휴대전화의 경우 첫 달 판매량은 만족스럽지만, 신규 모델 출시가 더딘 상황에서 5G로 끝이 아닐 만한 확실한 요소가 없다"며 "머지 않아 판매량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시스

## 배달앱, 배민·요기요 이어 3위는 '버거킹'...배달통 5위

### "매출 1/3 배달서 나올 것"

소비자들은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다음으로 버거킹 딜리버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앱데이터 분석업체 인크로스의 '배달앱 플랫폼 사용자 분석 추이' 분석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이 지난 4월 순방문자수(앱&웹) 639만 명으로 1위에 올랐다. 요기요가 368만 명으로 2위다. 버거킹과 롯데리아가 각각 123만명, 63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배달통은 5위로 뒤졌다.

버거킹과 롯데리아는 배달앱이 아닌 '브랜드앱'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브랜드 앱은 배달앱과 달리 마니이층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 성장이 담보된다.

롯데리아의 경우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롯데리아 앱의 순방문자수(4월 기준)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버거킹 역시 전년보다 49.5% 늘어 배달의 민족(35.3%)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순방문자수 증가와 함께 배달 매

출 비중도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전체 매출 중 27.9%(4월 기준)를 배달에서 올리고 있다. 2014년 14.5%였던 롯데리아의 배달 매출 비중은 2015년 15.7%, 2016년 17.3%, 2017년 20.2%, 지난해 25.0%로 매년 상승 중이다. 앞으로 매출의 3분의 1이 배달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배달시장은 20조원 규모로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앱, 버거킹 등 프랜차이즈앱에 이어 최근에는 쿠팡과 네이버도 도전장을 던졌다.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